



# 더불어 사는 목재사회 조성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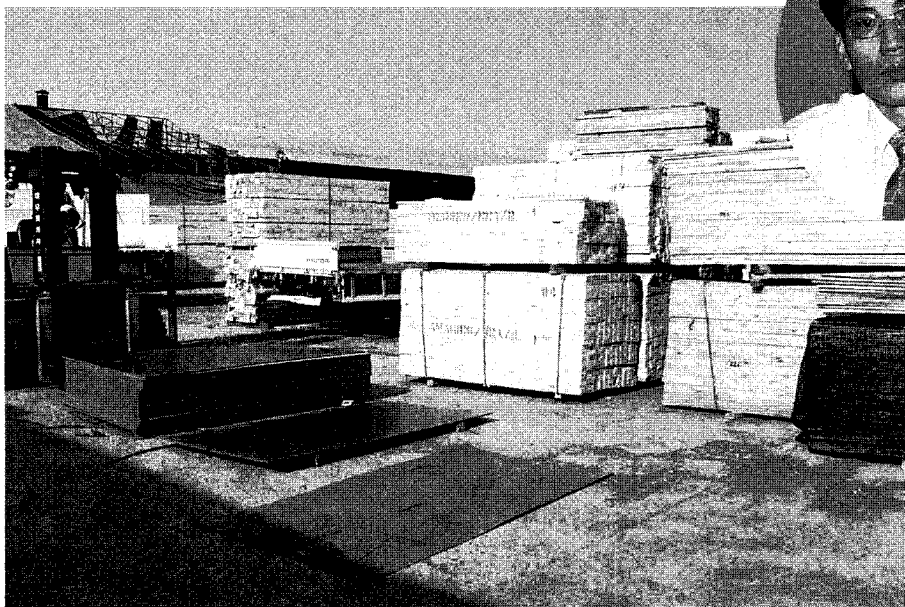
납기준수 · 품질우선 원칙으로 생산가동

한국물류산업은 목재팔레트 및 목상자 제조 설비 및 보관창고, 대지를 완비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품질공급과 신뢰도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과 개발을 통하여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품공급을 하고자 전사원이 KOLOCO제품의 신뢰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목재의 효용과 보존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환경이나 기타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팔레트를 사용해 왔는데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의해 지구

의 환경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건강문제가 심각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간의 폐기물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때에 한국물류산업(KOLOCO)이 제공하는 'WOODEN GREEN PALLET'는 특정 유독물질 및 중금속이 완전히 배제된 목재방부제를 혼중처리하여 제작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영근 사장

▲ 인천에 위치한 한국물류산업 아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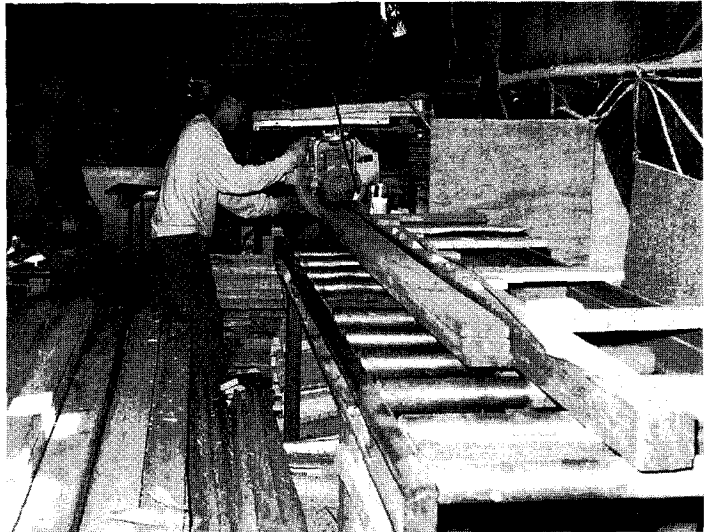
### 물류합리화는 포장에서부터

목재계에 17년동안 몸담아 온 김영근 사장은 “물류합리화는 포장의 개선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보관, 하역, 운송의 제비용을 어떻게 근대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는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은 경제발전에만 따라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라고 밝힌다.

주문제작, 납품전문업체인 한국물류산업은 95년에 설립됐지만 짧은 경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건실한 업체이다.

15명으로 구성된 한국물류산업의 주요생산품목은 목재팔레트(특수팔레트) 및 목상자로 연간 150,000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목재제재설비 4종 외 1,500㎡/mon, 팔레트 제작설비 2라인 13,000/mon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한국물류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목재팔레트의 적용이 가능한 업체는 제지, 제관, 화학비철 금속, 수출용 팔레트, 일반 보관용 및 내수용 팔레트, 냉동·냉장 보관 및 물류창고 야적적재 운송용 팔레트, 1회용 일반 내수·수출용 팔레트 수요 업체 등 전산업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 납기준수와 좋은 품질생산을 경영원칙으로 한 한국물류산업 생산현장

### 문어발식 확장 지양

“제가 목재시장에 뛰어들 이유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팔레트를 보면 거의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기간산업’이니, ‘대기업의 모태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양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물류산업은 중소기업형 목재팔레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조그만 회사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회사에 맞는 사양으로 팔레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자계통에서 근무하다 동양목재에서 우연찮게 팔레트와 연관돼 이 사업에 뛰어들 김영근 사장은 힘의 역학은 어쩔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승부하려면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재

에 대한 표준화와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제품의 생산공정에 있어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물류산업 김 사장은 목재팔레트를 사용 후 파손시 칩보드로 사용키 위해 재활용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원자재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해 이익이 남으면 구매 고객들에게 환원시켜 주고 있다. 또한 나무의 특성상 동절기와 하절기에 제품의 하자발생비율이 높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를 1, 2, 3차로 가공해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다양한 품목에 맞는 팔레트

대한상의의 자료에 의하면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 1,100×1,100형 치수가 전체의 25.3%로 규격치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1,000×1,200형 치수는 전체의 10.08%로 사용기업측면에서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사에서 사용중인 팔레트의 재질은 목재가 61.4%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플라스틱이 29.6%, 기타 11%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에 따른 재질별 특성은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물류업이 94.4%로 가장 많고, 유통업 62.3%, 제조업 57.2% 순으로 제조업의 목재

팔레트 사용율이 타업종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목재팔레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기업이 플라스틱 팔레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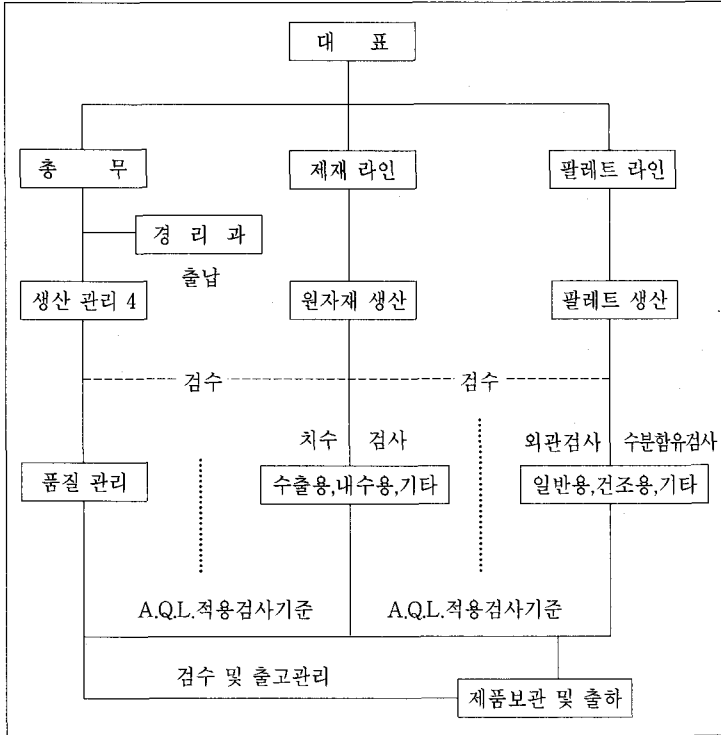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목재, 플라스틱, 혹은 스틸팔레트 모두 장단점은 있습니다. 각 팔레트 나름대로 사양에 맞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즉 고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시말해 품질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각 팔레트들이 습기문제, 곰팡이 문제, 편리성 문제 등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문제에 있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표] 제조 설비 현황표

구분	장비 및 시설명	특 성	단위	보유수량	비고
제 제	체인쏘우 4척	원목절단 쏘우	EA	1	
	자동 대차기	원목 제재용 기기	EA	1	
	자동 테이블	목재 규격 제재기기	EA	1	
가 공	자동 대패기	목재 정밀 가공기기 (면 다듬질 가공기)	EA	1	
	띠톱 기계	목형 가공기기	EA	1	
	크로스 컷팅기	목재 CUTTING 기기	EA	1	
	에어 자동 타정기	팔레트 제작기기	EA	5	
	에어 PIN 타정기	팔레트 및 목상자 제작기기	EA	3	
	함수기	함수율 측정기 (제품 테스트 장비)	EA	1	
운 송	지게차	운송기 (운반차량)	EA	1	
	핸드카	간이 운반기기	EA	1	

• 제 제 :	생산라인, 원목가공제재 1라인 (LINE)	동	1
• 팔 레 트 :	생산라인, 팔레트 생산 2라인 (LINE)	동	1
• 제 품 창 고 :	보관창고, 수출용, 건조용 보관창고	동	1
• 야 적 장 :	일반, 팔레트 및 목재 야적장	동	1

(그림) 조직 및 생산과정현황



제품의 유형과 업종별로 서서히 규격화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렌탈팔레트와 자체 수급의 팔레트의 관계에 있어 팔레트 회수율이 65% 이상만 되면 자체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덧붙여 말하는 김 사장은 국내에도 유통용 팔레트와 수출용 팔레트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수출용은 1,100×1,100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찾아가는 물류산업**

팔레트 생산 중 70%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기일을 3일 이내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물류산업은 대형차와 소형차에 맞게끔 그린팔레트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기에 목재는 보다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는 한국물류산업은 올해 매출액을 20억으로 설정했다. 10월 1일부로 창립 1주년을 맞이 하는 신생업체이지만 많은 매출실적이 그들의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증명했다.

직원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김 사장은 “아직도 팔레트 하면 명석이란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팔레트도 하나의 상품 이거든요. 팔레트는 생산자체

에서 시작해 유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국내 물류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물류가 유통에만 국한됐지만 오늘날 물류는 생산, 유통,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공정에 포함됩니다”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앉아서 연구하는 물류산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물류산업’으로 전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굳은 미소를 비쳤다. ☞

변준섭 기자